

요약

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최근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음.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보험회사들은 신상품 출시, 파트너십 및 인수 등을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. 또한 시장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해 건강증진 서비스가 주요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. 아울러 반려동물의 동반자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들이 고령주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음

-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최근 4년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¹⁾
 - 2023년 미국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는 2019년 15.6억 달러에서 39.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,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(CAGR)은 약 25.9%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
 - 미국에서 보험에 가입된 개와 고양이는 2019년 252만 마리에서 2023년 568만 마리로 2배 이상 늘었으며, 2023년 기준 보험에 가입된 개는 78.6%, 고양이는 21.4%임
 - 반려인 증가, 반려동물 치료비 상승, 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 판매 강화, 그리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추세 등이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장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음
 - 2023년 기준 미국 가구의 약 75%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반려인의 95% 이상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며, 보험회사들도 반려동물 관련 보험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²⁾
 - 미국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는 지난 4년간 고성장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여전히 4% 미만에 머물러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
 -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는 2024~2030년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률이 약 17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
- 최근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급성장하는 미국 시장에서 신상품 출시, 파트너십 및 인수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
 - 2023년 2월 Embrace Pet Insurance는 반려동물 건강증진과 반려인의 경험 향상에 전념하는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반려동물보험 브랜드 및 상품을 발표함

1) NAPHIA(2024. 5), "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Industry Continued Exceptional Growth Rate In 2023"

2) BetterVet(2024. 2), "Benefits of Having Employee Pet Insurance"

- 2024년 1월 Nationwide는 반려동물 건강증진 서비스회사인 Petco Health and Wellness와 협력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“petco.com”에서 출시함
 - 2024년 4월 글로벌 보험회사인 Chubb는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 서비스회사인 Aon의 미국 반려동물보험 전문 총괄 대리회사(MGA)인 Healthy Paws를 인수함
- 또한 시장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까지 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³⁾
- 2017년에는 Nationwide, Trupanion, Health Paw Pet Insurance, Fetch Insurance, Crum&Forster Pet Insurance가 상위 5위권에 있었으나, 경쟁 심화로 2023년에는 Pets Best Insurance와 Embrace Pet Insurance가 Health Paw Pet Insurance와 Crum&Forster Pet Insurance를 제치고 상위 5위권에 진입함
 -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81.7%에서 2023년 79.7%로 소폭 하락함
 - 반려인들이 정기 건강검진, 백신 접종, 구강 관리 등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높아지고 있음
 - 대다수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건강검진, 중성화 수술, 백신 접종, 구강 관리 등을 건강증진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, 일부 보험회사는 미용, 샴푸, 발톱 관리 등 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
 - Nationwide는 건강증진, 백신 접종, 구충 등을 연간 500달러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Pets Best Insurance의 경우 건강증진 서비스에 구강관리, 예방약, 건강검진 등을 포함하고 있음
 - Embrace Pet Insurance의 건강증진 서비스는 다른 보험회사들에 비해 미용, 약용 샴푸, 발톱 손질 등 지원 대상 서비스가 더 폭넓으며, 한도 금액에 따라 3가지 플랜이 있음
- 아울러 반려동물이 반려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음
- 미국 비영리 재단인 Transamerica Institute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, 2022년 미국 근로자의 39%가 반려동물보험이 중요한 직원 복지라고 응답하였지만, 고용주의 5%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⁾
 - 다만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Mercer의 조사 결과, 2022년 미국에서 5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중 36%가 직원들에게 반려동물보험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5년 전 대비 22%p 증가한 수준임⁵⁾
 -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Nationwide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보험회사로, 이 회사의 반려동물보험 매출의 70%가 고용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⁶⁾

3) NOMURA(2024. 5), “米国ペット保険市場からみたウェルネスサービスの可能性”; POLARIS(2024. 3), “U.S. Pet Insurance Market Share, Size, Trends, Industry Analysis Report, By Coverage Type (Accident Only, Accident & Illness, Others); By Animal type; By Sales Channel; Segment Forecast, 2024~2032”

4) Human Resource Executive(2022. 8), “Are you offering the benefits employees most want? Probably not, data finds”

5) Mercer(2023. 7), “Pet insurance – a valued benefit and a good excuse to share pet pics”

6) HRDIVE(2023. 11), “Pet insurance is the ‘in vogue’ voluntary employee benefit”